

멕시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1,964천 km ²	GDP	1조 636억 달러 (2016년)
인구	1.2억 명(2016년)	1인당 GDP	8,699달러 (2016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Mexican pesos (MXN)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주의	환율(달러당)	18.7 (2016년 평균)

- 멕시코는 한반도의 약 9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와 석유, 은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GDP 기준 세계 15위이자 브라질에 이은 중남미 제2의 경제대국임.
- 2012년 12월 취임한 니에토 대통령은 조세, 에너지, 통신 산업 등의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전반에 만연한 마약 관련 범죄로 치안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은 멕시코의 제 1의 교역국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으나, 2017년 1월 출범한 미국 신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및 이민규제 정책 추진으로 양국 관계는 다소 냉각된 상태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f
경제성장률	1.4	2.3	2.5	2.2	1.7
소비자물가상승률	3.8	4.0	2.7	3.4	4.6
재정수지 / GDP	-3.7	-4.6	-4.1	-3.0	-3.0

자료: IMF, EIU, 멕시코 중앙은행(Banco de México)

□ 수출 감소, 저유가 등으로 저성장 지속

- 멕시코 경제성장률은 대미 자동차 부문 수출확대에 힘입어 2014년에는 2.3%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도 유가하락, 세계경기 침체 등에 따른 전반적인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2.5%의 완만한 성장세를 시현함.
- 2016년에는 노동여건 개선을 통한 민간소비 증가와 해외송금액 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한 반면, 지속된 저유가 및 제조업 수출 감소 등에 따른 수출 수입(收入) 감소로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함.
 - 최저임금 인상, 고용 증가 등으로 노동여건이 개선되면서 소비가 증가한 반면, 미국의 산업 활동 둔화에 따른 제조업 수출 및 기계장비 투자 감소로 성장이 다소 둔화됨.
- 한편, 美트럼프 대통령이 NA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대미 경제의존도(수출의 80% 이상)가 높은 멕시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 추진 가속화시 수출환경 악화, 내수 위축 등으로 2017년 멕시코 경제는 보다 위축될 전망이다.

□ 3% 내외의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유지

- 멕시코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목표범위를 2~4%로 설정(목표 수준: 3%)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목표범위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2015년 물가상승률은 유가하락 및 통신요금 인하 등으로 2.7%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폐소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다소 상승한 3.4%를 기록함.

※ 환율추이(폐소/달러): ('13) 12.8 → ('14) 13.3 → ('15) 15.9 → ('16) 18.7

- o 2017년에도 물가상승률은 목표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나, 최근 지속된 통화약세 기조와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 축소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면서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1월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시장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휘발유 가격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그 여파로 동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72%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급등함.

* 프리미엄 휘발유(고급유종) 가격은 ℓ 당 17.79페소(△20.1%), 마그나 휘발유는 ℓ 당 평균 15.99페소(△14.2%), 디젤은 ℓ 당 17.05페소(△16.5%)로 각각 인상됨. 프리미엄 휘발유 4ℓ의 가격은 멕시코 하루 최저 일당(73.4페소)과 맞먹는 수준임.

- 멕시코 정부는 환율방어와 물가안정화를 위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6차례 금리를 인상하였으며, 2017년 2월 기준금리는 전년 동월(3.25%)의 2배 수준인 6.25%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함.

※ 금리인상추이: ('15.12) 3.25% → ('16.2) 3.75% → ('16.6) 4.25% → ('16.9) 4.75% → ('16.11) 5.25% → ('16.12) 5.75% → ('17.2) 6.25%

□ 非석유부문 세수 증대, 정부지출 감소 등으로 재정적자 수준 소폭 개선

- o 취약한 세수기반, 국제 유가하락 추세 속 원유에 대한 세입의존 등으로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5년에는 세제개혁('13년)을 통한 비석유 부문 세수 증대를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전년(4.6%)대비 개선된 4.1%를 기록함.

- 2015년 GDP 대비 세수는 17.4%로 전년(15.2%)대비 증가하였으며, 비석유 부문의 재정수입이 GDP의 13%로 역대 최고를 기록함.

- o 2016년에도 정부의 예산지출 감소 노력을 통해 적자비중이 3.0%로 축소된 가운데, 2017년에는 유가 상승과 긴축재정 실시를 통해 재정적자 수준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멕시코 정부는 세수 증대와 더불어 주요 재정수입원인 국영 석유회사 (PEMEX)의 경비지출 삭감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미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

- 2016년 기준 멕시코의 대미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80.2%(수입액은 40.8%)로 높으며, 연간 GDP의 2%에 달하는 해외송금액 유입의 상당 부분이 미국 거주 자국민에 기반하고 있음.

- 특히, 자동차 관련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이중 약 77% 가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바, 미국과의 관계경색 및 교역정책 변화에 민감한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 또한, 2016년 기준 미국으로부터의 FDI 유입이 전체 투자의 약 38.9% (104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는 등 2014년 53.0% 수준 대비 투자비중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국가별 FDI 유입 비중('16년) : 미국(38.9%), 스페인(10.7%), 독일(9.0%), 이스라엘(7.5%), 캐나다(6.3%) 등

- 이에, 멕시코 정부는 아시아 및 유럽 국가와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해외투자자본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높은 대미의존도를 단기간 내에 경감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원유산업에 대한 의존으로 국제 유가변동에 민감

- 멕시코는 중남미 대표 산유국으로, 재정수입 및 수출 수입(收入)의 상당 부분을 원유에 의존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재정수입의 16%를 원유관련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 관련 수출 수입(收入)은 유가하락 및 원유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2014년 424억 달러(총 수출의 11%)에서 2016년에는 187억 달러(총 수출의 5%)로 감소함.

* 원유관련 재정수입은 유가하락 등으로 감소한 반면, 총 재정수입은 증가하면서 재정수입의 원유의존도가 2013년 35%에서 2016년 16% 수준으로 축소됨.

- o 이에, 멕시코 정부는 연간 헤지 프로그램(1년 수출물량에 대해 풋옵션 계약 매수)을 통해 유가하락 위험의 일정 부분을 관리하는 한편, 통신·에너지 시장 개방, 재정수입 기반 다변화 등을 통해 유가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부존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 보유

- o 멕시코는 아연(매장량 세계 4위), 동(4위), 은(6위) 등의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석유 생산량은 세계 11위(중남미 2위), 천연가스 생산량은 세계 16위(중남미 1위) 수준임.
- o 또한, 멕시코는 GDP 1조 달러 이상, 인구 1억명 이상인 경제대국이며, 15~64세 인구가 전체의 65.9%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구조, 인구 증가, 임금상승 등을 감안할 때 내수시장 규모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지정학적 위치 활용으로 인접시장 접근 유리

- o 멕시코는 북미와 중남미를 연결하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에 면해 있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미국과 3,326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음.
- o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을 통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과 체결한 태평양동맹(PA)을 통해 중남미 전략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멕시코는 미국의 3위 교역국(14.4%)으로, 미국의 대 멕시코 수출 및 수입 규모는 각각 총 수출의 15.9%(2위), 수입의 13.4%(2위)를 차지

다. 정책성과

□ 주요 산업 개방 및 조세개혁 등 경제 체질개선 적극 추진

-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 부문을 개방하는 에너지개혁법(2013.12월) 및 외국인 투자지분비율을 확대하는 방송통신개혁법(2014.7월) 제정 등을 통해 중요 산업에 대한 체질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음.
- 멕시코는 라운드원(Round One)을 통해 민간에게 석유광구 입찰참여를 개방하고 있으며, 독점 시장이던 통신 산업의 경우 AT&T(미국), Virgin Mobile(영국) 등 유수의 해외통신사가 진출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임.

< 라운드 원(Round One) 개요 >

- 명 칭 : 영어 Round One, 스페인어 Ronda Uno
- 발주처 : 국가탄화수소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Hidrocarburos, CNH)
- 대 상 : 민간 기업(외국계 포함), 입찰대상 광구는 총 169개임.
- 목 적 : 석유·가스 분야에 대한 민간 개방을 통한 원유 생산량 증대
- 입찰현황(평균 낙찰률 63.5% ※ 멕시코 정부 예상 낙찰률 35%)
 - 1차 입찰 : 2015년 7월, 총 14개 광구 중 2개 낙찰(낙찰률: 14%)
 - 2차 입찰 : 2015년 9월, 총 5개 광구 중 3개 낙찰(낙찰률: 60%)
 - 3차 입찰 : 2015년 12월, 총 25개 광구 중 25개 낙찰(낙찰률: 100%)
 - 4차 입찰 : 2016년 12월, 총 10개 광구 중 8개 낙찰(낙찰률: 80%)

- 또한, 세수확대를 위해 멕시코 정부는 조세개혁법(2013.11월)을 제정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주식처분소득 및 주주배당금에 대한 세금 등을 신설함.
- GDP 대비 세수비중은 2000년 13.6%에서 2015년 17.4%로 3.8%p 증가하여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34.0%→34.3%, △0.3%p) 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되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 물가상승률, 목표범위 내 관리 철저

- 멕시코는 물가상승률 목표를 3%±1%로 설정하고 상승률 범위 이내에서 물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변동환율의 이점, 재정 강화와 더불어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화정책을 통해 IMF로부터 양호한 '거시경제 정책 프레임 워크'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3. 대외거래

□ GDP 대비 2% 대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최근 수년간 상품수지, 소득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해외거주자 송금액 등 안정적인 경상이전수지 확보를 통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대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외국기업의 투자이익에 대한 해외 송금 등에 기인한 소득수지 적자규모가 연간 30억 달러 이상으로, 이를 해외거주자 송금액* 등이 보충하며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완충하고 있음.
 - * 해외거주국민의 국내 외화송금액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에는 전년대비 약 8.8% 증가한 269.7억 달러를 기록함.
- 2017년에도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될 전망이나, 수출 호재와 수출 악재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GDP 대비 적자비중은 현 수준을 유지 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증가, 미국의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35%) 부과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수출 확대의 호재와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대미 수출 위축 등의 악재가 상존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f
경 상 수 지	-30,952	-26,131	-33,216	-28,425	-29,433
경 상 수 지 / GDP	-2.5	-2.0	-2.9	-2.8	-3.2
상 품 수 지	-909	-2,790	-14,524	-13,136	-16,522
수 출	380,729	397,650	381,049	373,929	364,125
수 입	381,638	400,440	395,573	387,065	380,647
외 환 보 유 액	175,432	190,923	173,458	173,536	167,305
총 외 채 잔 액	400,038	437,762	453,406	457,006	480,709
총 외 채 잔 액 / GDP	31.7	33.7	39.6	42.8	42.6
D . S . R .	12.4	12.3	12.3	13.7	13.7

자료: IMF, EIU, OECD

□ 풍부한 외환보유고로 외채는 관리가능 수준이나, 상환부담은 다소 증가

- 멕시코는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을 통해 비교적 풍부한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월평균 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은 4.6개월로 외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됨.
 - 199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외환보유고는 2015년 통화 약세에 대응한 환율방어 등으로 전년의 90% 수준인 1,735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규모를 유지함.
 - 아울러 멕시코 정부는 IMF와 2년간 약 880억 달러(623.89억 SDR) 규모의 신축적 신용공여(Flexible Credit Line, FCL)를 갱신*(2016년 5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외환유동성위기에 대비하고 있음.
- * IMF는 2009년 4월 최초 FCL(470억 달러(315억 SDR))을 승인한 이래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기간연장 및 금액을 증액
- 다만,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GDP 대비 공공부채가 56.4%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D.S.R.도 13.7%로 전년(12.3%) 보다 상승하는 등 외채상환능력은 다소 악화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집권세력에 대한 낮은 지지율 지속

- 2000년까지 71년간 집권한 중도성향의 제도혁명당(PRI)이 2012년 7월 자당 소속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후보의 당선으로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나, 주요 공약인 치안불안 해결 및 부패척결 실패로 집권여당에 대한 대국민 신뢰는 크게 저하된 상태임.
- 2016년 6월 실시된 13개주 주지사 및 하원의원 선거결과 야당인 국민 행동당(PAN)이 7개주에서 승리한 반면 PRI는 5개주에 그쳤으며, 같은 해 멕시코시티의 제헌의회* 구성 선거에서도 모레나(MORENA)당이 22석을 차지한 반면, PRI는 5석에 그침.

- * 멕시코시티는 2016년 1월 29일부로 연방주에서 독립주로 변경되었으며, 독립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의회로 총 100명(선거선출의원 60명, 상원의원 14명, 하원의원 14명, 대통령 지정 6명, 멕시코 주지사 지정 6명)으로 구성
- o 니에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지속 하락하여 2016년 7월 29%였던 지지율은 미 대선('16.11월) 직후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5%로 하락하였으며, 2017년 1월 집권이후 최저인 12%를 기록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부정부패 만연, 치안불안 등으로 사회적 불안정 지속

- o 만성적인 정경 유착 스캔들과 높은 살인율, 거대 마약조직과 정부 간의 갈등 및 마약관련 범죄 등에 기인한 치안불안이 고질적인 사회불안 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6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멕시코의 청렴수준은 123/176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17년 경쟁력 보고서 또한 부정부패와 범죄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요소*로 평가함.

* 테러리즘 관련 비용(91/138위), 범죄 및 폭력관련 비용(130/138위), 조직범죄(135/138위)

- UN통계(2014년 기준)에 따르면 멕시코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o 이에, 멕시코 정부는 부패사건 전담 특별검찰청을 신설하고, 경찰 통솔권을 단일화하는 치안개혁법안*을 추진하는 등 부패척결 및 치안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12월 1,800여 개의 지방경찰을 32개 주정부로 대체하는 경찰단일화(Mando Unico)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16년 혼합경찰통솔(Mando Policial Mixto)로 수정되어 시행 중이나 관련 법규개정 문제 등으로 시행성과는 미진한 상태임.

3. 국제 관계

□ 미국-멕시코 관계 불확실성 확대

- 그 동안 니에토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마약밀매 등 치안 문제, 불법이민 문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왔음.
- 한편, 미국 신정부 출범(17. 1. 20)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35% 관세부과, 불법이민 규제 등 잇따른 반멕시코 정책관련 발언으로 양국 관계 및 멕시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NAFTA는 1994년 1월 발효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동 협정을 통해 멕시코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중남미 생산거점으로 급부상하며 일자리 창출 및 수출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음.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NAFTA를 ‘재앙(Disaster)’이자 미국에 불공정한 협정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취임 후에도 재협상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멕시코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멕시코 정부의 요청으로 5월까지 90일간 재협상 유예)
 - 또한, 미국의 국경장벽 설치명령(1.25)*,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추방 발언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양국 간 냉기류가 지속되고 있음.
 - * 장벽길이는 약 3,200km로 건설에 120억~1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은 비용의 100% 멕시코 부담을 주장하고 있음.

□ 경제협력 내실화를 통한 교역국과의 관계 확대 모색

- 멕시코는 1994년 NAFTA를 시작으로 양자 및 다자협정 체결을 통해 약 46개국과 경제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수출 지역 다변화 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내실화 및 확대에 힘쓰고 있음.
 - 코스타리카, 칠레 등 중남미 국가 외 유럽연합, 일본 등 15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통합체인 태평양동맹(PA)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이외, 터키, 요르단, 파라과이 등과 FTA체결을 협상 중이며, 한국, 싱가포르 등과의 FTA 재협상, TPP 무산에 대비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 등도 검토 중임.

구 분	참여 국가	비 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페루, 칠레, 캐나다 멕시코 등 12개국	-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진행중) - '17. 1월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지속 여부 미정
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PA)	콜롬비아, 페루, 칠레, 멕시코 등 4개국	- '12년 결성한 경제블록 - 중남미 전체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남미공동시장 (MERCOSUR)의 경쟁상대로 부상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	-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진행중) - '12년 11월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참여국 총합 인구 34억 명, 명목GDP 20조 달러의 거대 경제권임.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중장기 중심 외채구조, 외채상환태도는 양호

- o 2016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총 227.6억 달러 (단기 66.5억 달러, 중장기 161.1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총 2.1억 달러(단기 1.2억 달러 포함)로 승인금액의 1% 수준임.
- o 또한, 낮은 단기외채 비중, 외환보유액 규모, IMF의 신축적 신용공여 제공(880억 달러), 성공적인 해외채권발행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 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100년 만기 달러화 채권(10년, 26.8억 달러) 및 100년 만기 영국 파운드화 채권(14년, 10억 파운드) 발행 경험을 기반으로 2015년 세계 최초 100년 만기 유로화채권(15년, 15억 유로)을 발행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멕시코에 대한 투자자의 평판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임.

2. 국제시장평가

□ 국제신용평가사, 투자적격등급 유지

○ OECD는 2005년 10월 이후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신용평가사는 멕시코에 대한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Moody's는 경제성장을 둔화, 정부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2016년 3월 등급전망을 'Stable'에서 'Negative'로 전환하였으며, Fitch도 미국 대선 이후의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동년 12월 'Negative' 전망을 부여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B2	(2016. 2.)	B2	(2015. 2)
OECD	3등급	(2016. 10.)	3등급	(2015. 10.)
Moody's	A3	(2016. 3.)	A3	(2014. 2.)
Fitch	BBB+	(2016. 12.)	BBB+	(2016. 7.)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62년 1월 26일 (북한과는 1980년 9월 19일 수교)

□ 주요협정 : 무역협정(1969년), 문화협정(1969년), 경제과학기술협정(1990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95년), 범죄인인도조약(1997년),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1997년), 투자보장협정(2002년), 항공협정(2003년), 세관협력협정(2006년), 형사사법공조협정(2007년), 원자력협력협정(2013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6년 12월말 기준 365건, 46.7억 달러 (누계기준)

<표 4> 한·멕시코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주요품목
수 출	10,846	10,892	9,726	자동차부품, 철강판, 평판디스플레이
수 입	3,268	3,464	3,690	원유, 기타금속광물, 아연광
교역규모	14,114	14,356	13,416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최근 수년간 멕시코 경제는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2% 내외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2016년에는 민간 소비증가에도 불구하고 환율 절상, 대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하락한 2.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는 경제 불확실성이 가세하면서 성장률은 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 유가하락 및 원유생산 감소로 재정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적자를 지속 중이나,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및 세수확대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개선되고 있으며, 해외송금액 등 안정적인 경상 수입원을 기반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중도 3% 내외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2년 12월 취임한 니에토 대통령은 세제, 에너지, 통신 산업 등의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부정부패 척결실패, 범죄율 증가 및 저성장 지속 등으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인도는 크게 저하된 상태임.
- 한편, 미국 신행정부의 보호무역강화 기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에 대한 무역규제 및 이민규제와 관련한 강성 발언으로 최근 양국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환율상승 방어, 정부부채 증가로 부채상환능력은 다소 악화되었으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IMF의 신축적 신용공여 등을 통한 외환확보를 감안할 때 단기 대외지급능력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조사역 이정애(☎02-6255-5712)

E-mail : aeleej@koreaexim.go.kr